

# “엔터리 화장실” 무등산 토끼등 화장실 철거 요구 확산

시민들 “경관 저해·바람길 막아” 강 시장, 국립공원공단에 항의  
광주시와 협의 없이 일방 조정  
장불채 새 화장실도 우려 제기  
공원측 “오수관로 문제로 불가피”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고객의 소리' 게시글에 올라온 무등산토끼등 화장실 전경.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갈무리

국립공원공단이 최근 광주광역시 무등산에 새롭게 조성한 화장실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약직과 벌레 민원을 해소하고자 설치된 토끼등 화장실이 오히려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바람길을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지난 주말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해 무등산 토끼등 화장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강 시장의 명의로 무등산 등산로에 ‘국립공원공단 이사장님! 화장실! 이것은 아니지요’라고 적힌 항의 현수

막을 내걸기도 했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무등산 토끼등 화장실에 대한 비판글을 올리기도 했다.

강 시장은 게시글을 통해 “무등산 산행 중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저를 보면서 ‘토

끼등에 만들어진 화장실’을 두고 제게 불만을 토로해 직접 가보니, 바람길을 막고 풍경을 해치는 화장실을 보며 등산객들이 철거를 요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이 사랑하며 쉬어가는 무등산에 광주시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엔터리로 화장실을 지어놓았다”며 “국립공원

공단 이사장에게 즉각 대책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시민분들께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3년부터 무등산 내의 원효광장, 문빈정사, 토끼등, 장불채 화장실 정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토끼등 화장실은 기존 운영 중인 간이 화장실에 대한 약직·위생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 초 4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무등산 토끼등에 높이 6m, 연면적 80.34㎡ 규모의 화장실을 준공해 개방했다.

그러나 화장실 외관이 공개된 이후 건물이나 지나치게 큰 뿐만 아니라 무등산의 자연환경과 이질적으로 조성됐고, 바람길을 막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고객의 소리’에는 시민 김모씨가 ‘무등산 토끼등 화장실 철거를 요청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김모씨는 “토끼등은 접근성도 용이하고 여름엔 그늘과 바람이 좋아서

수많은 광주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쉼터인데, 광장에 초대형 화장실을 지어설 수 있는 공간도 없어지고 바람을 막아서 답답하다”며 “규모에 비해 화장실 내부 시설이 부실하다. 하루빨리 철거해서 소중한 휴식 공간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오는 8월 준공 예정인 장불채 화장실 역시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보통 저지대에 있는 일반 건축물 화장실은 광주시에 있는 공공 오수관로가 연결돼 있지만 기존 토끼등 화장실의 경우 산 위에 있다 보니 오수관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재래식 화장실만 마련된 상태였다”며 “쾌적한 화장실을 조성하기 위해 무방류 순환 시스템 등 정화 장치를 설치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화장실 크기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탐방객들이 쾌적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상이 기자 sangajeong@jnilbo.com

## 광주시-자치구, 소비쿠폰 재원 분담률 ‘축각’

전국 13개 광역단체중 9곳 5대5  
시, 5대5 제안에 자치구들 ‘난색’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재원 분담률을 두고 광주광역시와 자치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원 분담 비율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지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시와 자치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21일부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드는 광주시 지방비 분담액은 406억원(지방비 비율 10%)으로 잠정 추산됐다.

광주시는 최근 해당 분담금을 두고 5개 자치구에 5대5로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현재 도시철도 2호선 사업과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추진 등 급박한 현안으로 인해 2조가 넘는 부채를 안는 등

재정 부담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는 지방재정교부금 분담률(23.9%)이 타 지자체보다 높은 만큼 이번 만큼은 자치구에서 5대5로 하면 재원도 분담하고 명분도 있고 좋을 것 같다”며 5개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5개 자치구 역시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을 호소하며 8대2로 조정할 것을 건의하며 광주시와 이견 차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의 제안대로 시와 구가 5대5로 부담하면, 동구 16억, 서구 40억, 남구 31억, 북구·광산구 각 60억 등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달리 다른 지자체들은 서둘러 분담 비율을 확정한 후 나섰다.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 13곳은 분담 비율을 확정한 후, 나머지 3곳도 검토·협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대전·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

경북·경남 등 9곳은 광역·기초가 5대5로 비용을 분담하기로 확정했다.

분담 비율을 확정한 지역 중 서울(6대4)과 울산(8대2)은 광역단체 분담비율이 더 높았다. 기초지자체가 없는 세종과 행정시 체제로 운영 중인 제주는 광역단체가 100% 분담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합의를 마친 타 지자체 중 대부분이 광역·기초지자체 분담률을 5대5로 결정한 점을 고려해 자치구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비 재원 분담률과 관련해서 현재 협의 중이라 정해진 바는 없다”며 “소비쿠폰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각 지자체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정장협의회는 오는 17일 오전 재원 분담률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정상이 기자

## 김 지사 “포용사회 만들어 평화통일 밑거름 앞장”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메시지  
“분단 현실 극복·남북통합 산증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4일 국가기념일인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차별 없이 모두 하나 되는 포용사회를 만들어 한반도 평화통일의 밑거름이 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메시지를 통해 “용기 있는 선택을 통해 전남에서 새 삶을 일구고 있는 679명의 북한이탈주민께 깊은 존경과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은 분단 80년의 현실을 몸소 극복한 분들로, 전남 곳곳에서 이웃과 정을 나누는 모습은, 남북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평화통일 시대를 앞장질 소중한 디딤돌”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새 정부는 평화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화채널 복원을 제안했다”면서 “이

러한 흐름이 계속돼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평화통일의 씨앗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자립을 위해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취업·고용지원금, 탈북민 가정 청소년 학원비, 전남도 전입자가전제품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 모두가 북한이탈주민을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따뜻한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 이해하고 배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202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올해 두 번째를 맞았다.

전남도는 이를 기념해 지난 12일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에서 사진공모전 시상식, 탈북예술인 공연, 통일 체험 버스 등을 포함한 기념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오지현 기자

**분양계약서 분실공고**

계약자 : 이미경  
주소 :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동운리 636 한양립스  
연락처 : 010-9610-7545

**분할 합병공고**  
(채권자 이외의 주권제출 공고)

플라벨 주식회사(이하 “갑” 이라함)와 태건전기 주식회사(이하 “을” 이라함)는 각각 2025년 07월 14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의로 상법 제53조의2 규정에 따라 “갑” 의 그 재산(영입)의 일부인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이 합병하고, “갑” 은 주체로 하여 “갑” 의 분할된 전기공사업의 재산 부채를 “갑” 의 전기공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을” 이 승계하며 상법 제53조의9 제2항의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 은 출자받은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 부터 7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고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사가 배려, 이의가 없으면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 및 최고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1. 분할합병대상 : 전기공사업 (광주-00782호)  
양도자(갑)  
상 호 : 플라벨 주식회사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300번길 110 (옥동)  
대표이사 : 김 근 하  
양수자(을)  
상 호 : 태건전기 주식회사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84, 1동 411호 (나성동, 마들맨)  
대표이사 : 이 연 화

**광고문의**

팩스 : 062-519-0709  
전화 : 062-519-0710

全南日報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돈**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받아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재광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원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주재기자 모집**

당사는 지역언론을 선도할 진취적이고 창의적 이상을 갖춘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지역 및 인원**

지역	구례
인원	1명

**제출서류**

- 이력서(연락처 명기) . . . . . 1부
- 주민등록등본 . . . . . 1부
- 자기소개서 . . . . . 1부

**접수마감 및 접수처**

- 접수마감 : 채용시 마감
- 접수처 : 우편 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전남일보사 경영본부
- 이메일 접수 - recruit@jnilbo.com
- 기타 사항은 ☎(062)510-0421로 문의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全南日報

**드론타임**

DRONE TIME

고퀄리티(4K) /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편집

스포츠촬영/축제/산업현장/호텔/펜션/학교  
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선시집/양식장/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